

문화소식

국악교성곡 '붓다' 공연

불교음악협회(회장 반영규)는 12월 2일 오후 7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산하 30여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사단법인 발족 기념 창작 국악 교성곡 '붓다'를 공연한다.

박법훈(중앙대) 교수가 곡을 붙인 '붓다'는 지난 1991년 종교음악제에서 초연됐던 것으로 부처님의 탄생에서 출가, 성도, 열반에 이르는 생애를 모두 10장으로 구성된 국악교성곡이다. 박 교수가 단장으로 있는 국립극관악단이 반주를 맡고, 불교음악협회 연합합창단, 서울대학교 성악과 남성합창단이 출연한다. 독창으로는 최진숙, 도신스님, 상운스님이 나서고 무용가 채창숙 씨도 특별 출연한다. (02) 904-5763

진주 불교음악 한미당

진주불교회관은 30일 오후 7시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불교대중화를 위한 제7회 '불교음악 한미당'을 연다.

이번 행사에는 찬불가를 통한 불교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성악가 시명스님과 정률스님을 비롯 불자가수 김무한, 명국환, 한명숙, 김명일, 마루와 다래 등이 출연한다. 또한 진주불교합창단, 대불련 풍물패 등이 참가해 흥겨운 한미당을 펼칠 예정이다. (055)747-0108

서울대 불교음악 특강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는 24일 오후 4시 30분 법흥스님(동국대 국악과 교수) 초청 '불교음악 특강'을 실시한다.

이 강의에서 스님은 '불교음악 법과와 불교무용 이해'를 주제로 일반인이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론과 실기를 선보인다. (02)3880-7471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 방송국 '에디언'

BIT...한마음 방송국...에디언...대불련...

불교 인터넷 방송시대

천태종·여래사 등도 '준비'...지속관리 '숙제'

인터넷 인구가 급증하면서 교계에도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한 인터넷 방송국이 하나둘 늘어나며 본격적인 인터넷 방송 포교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영상포교를 위한 인터넷 방송국이 늘어나는 일은 반가운 일이지만, 수직 증가 자체만으로 환영하기보다는 네티즌들이 원하는 다양한 생생한 불교의 역사와 문화 현장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운영중인 교계 인터넷 방송국들의 지속적인 관리와 콘텐츠 개발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TV나 라디오와는 달리 불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 시기와 장소에 구애없이 컴퓨터를 통해 직접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인터넷 방송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계 인터넷 방송국은 불교인터넷 TV(BIT), 에디언, 한마음방송국, 대불련 등 총 6개 정도. 이중 지난해 11월 교계에서 첫 인터넷 TV 방송을 시작한 '한마음불교방송'(www.hanmaum.org)은 한국의 명찰, 선법가 유적지, 다량 콘텐츠 등의 프로그램으로 네티즌 시청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한마음불교방송과 비슷한 시기에 문을 연 '불교인터넷 TV'(www.buddharv.com)도 7개의 채널에 불교교리, 사이버법당, 불교만화, 다큐멘터리, 음악 등 10대에서 50대까지 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또 열린종교시민대학과 불교인터넷대학, 무불선원 등 불교인터넷과 연계해 교리 강좌와 학술 세미나 등의 현장 감의를 녹화 중계하고 있다. 이외에 지난 10월21일 개국한 청소년 대상 인터넷 방송국 '에디언'(asTEN.net)은 2개의 라디오 채널과 1개의 영상 채널을 개설해 관공, 대중가요, 인디음악, 테크노댄스 등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음악과 영상 설비를 내보내고 있다. 특히 에디언은 개설된지 1달도 채 안됐지만 하루에 3백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여기에서 포교 전문 인터넷 TV인 '한국불교TV'가 내년 1월 1일 개국할 예정이며, 불교정보센터, 천태종, 일산 여래사 등 불교 단체와 종단, 개별 사찰에서도 인터넷 방송국 개국을 위한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어, 내년에 교계에 10개가 넘는 인터넷 방송국이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현재 교계 대부분의 인터넷 방송국이 재정과 인력부족



교계 최초 인터넷 방송국 '한마음 불교방송'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불교인터넷 TV

한빛문화재단 소장품 12월 20일까지 화정박물관 전시

중국미술의 매력 화려함과 다양함

볼 수 접하기 어려운 중국 미술의 진수를 엿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한빛문화재단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화정박물관에서 12월 20일까지 여는 '중국 미술 소장품전'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전시는 도자기, 회화, 불화, 서예, 불교조각, 금속공예, 자수 등 중국 미술의 각 분야를 포괄한 유물 180여 점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의 주축을 이

루는 것은 도자기와 회화이지만 명·청대의 불교미술품들도 눈에 띈다. 특히 물이나 옥자에 있는 중생에게 음식을 베푸는 수륙재를 지낼 때 일종의 걸개그림으로 사용했던 17세기 수륙화 7점을 볼 수 있다. 우리 나라 야외법회에서 사용하는 과불보다는 크기가 작은 이수륙화는 조각그림 맞추기처럼 여러 개의 행화를 이어 붙일 수 있게 변화가 생겨져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밖에 원대에 활약한 서예가 송림의 '금강반야바라밀경'과 '비라밀다심경'을 사경한 서예 작품, 금·청동 불상 등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한 장르의 유물뿐만 아니라 타전시회에 비해 중국 미술의 여러 분야를 고루 접할 수 있는 것도 이 전시회의 매력이다. (02)798-1954 권형진 기자(jinny@buddhania.com)



화정박물관 전시중인 '수륙화'

"모양·색깔 생화같아요"

정명스님 법당용 연꽃 조화 개발

불교꽃꽂이를 연구하는 연화플라워회 회장 정명스님(연화사 주지)이 최근 법당 장엄용 연꽃 조화를 개발했다.

근래 들어 대부분의 사찰에서 비단 생화보다는 조화를 이용하고 있지만, 법당과 자연스레 어울리지 못하는데 아쉬움을 느낀 스님이 직접 연꽃 조화 만들기에 나선 것이다.

스님은 "그동안 법당을 장엄해 온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수입된 조화들은 그 형태나 색깔이 일률적이고, 조합해서 장엄용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면서 "2년 가까이 연꽃이 피는 곳을 직접 찾아가 모양과 빛깔을 일일이 살피고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꽃 조화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새 천년의 연꽃'이라고 이름지어진 이 연꽃 조화는 생화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모양이나 빛깔이 아름답게 표현되었다. 또 어린이가 주머니만한 크기에서부터 어른의 키를 넘는 정도의 대형작품에 이르기까지 크기와 형태도 다양하다.

한 송이의 연꽃 조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꽃잎 마음집에서부터, 염색하기, 꽃줄기 다듬기, 연잎, 연방, 연꽃봉우리 붙이기 등 3백번이상의 손질이 직접 되어야 한다. 스님은 이렇게 만들어진 연꽃 조화 작품 60여점을 12월 6일~12일까지 서울 안국동 백상갤러리에서 전시할 계획이다. (02)388-0108

이은자 기자(ejlee@buddhania.com)



멕시코박물관 한국실 개관

대영박물관내 한국실이 지난 8일 개관한데 이어 멕시코에도 중남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한국 유물 전시관이 생긴다. 23일 문을 여는 한국 유물 전시관은 멕시코시티 소칼로 광장에 자리잡은 멕시코 문화박물관 2층에 37평 규모로 들어서며, 우리나라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물 70여 점이 전시된다. 한국실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중인 금동미륵보살반가상(국보 제78호)을 중요유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상 박한수 씨가 나무로 재현한 목조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을 비롯해 불은 건포기와 빛살무

늬포기, 무용총 수렵도, 분청사기 조화연화당초문호 등 각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들로 꾸었다. 시내 중심가에 자리잡은 멕시코 문화박물관은 멕시코 최초의 박물관으로 이집트관, 이탈리아관 등 전세계 23개 나라의 전시실이 마련돼 있고, 한국실이 개관한 2층에는 중국관과 일본관 등 아시아 지역 전시실이 들어서 있다. 국제교류재단은 "중남미 지역에서는 처음인데다 마야와 아즈텍 문명의 중심지인 멕시코 문화박물관에 한국실이 들어선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사이버 문화

사찰과 건축

사찰건축의 변화 '한눈에'

사찰에 들어서면 대웅전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에서부터 화려한 단청,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 등 현대건축물과 다른 전통건축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마련이다. 이러한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만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사찰과 건축(http://comdi.woosong.ac.kr/samsung/issue/home2.htm) 홈페이지다. 우리 전통문화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문화, 그 중에서도 전통건축분야에 대한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들어 있다. 이곳에서는 지붕·공포·기둥·초석·기단 등 사찰 내 여러 전각들을 이루고 있는 각 구성요소



사찰건축의 변화 '한눈에'

따라 어떤 특성을 보여며 변모해 왔는지도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한국의 사찰 코너에서는 생계사·풍도사·선운사·개심사·화엄사·부석사 등 건축양식이 뛰어난 사찰을 골라 각 전각과 보유문화재 등을 사진과 함께 보여주고 있어, 사찰의 정취를 맛볼 수 있다. 또 사찰 건축에서 배놓을 수 없는 단청에 대한 자료도 많다. 단청의 의미에서부터 특징, 순서, 종류, 팔러까지 갖추고 있다. 강지연 기자(jyang@buddhania.com)

들을 살살이 보여준다. 사찰건축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삼국시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 건축양식과 가람배치도가 시대에 따라 어떤 특성을 보여며 변모해 왔는지도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Advertisement for mahamall featuring various products like '108나한단주', '요은열 건강벨트', '야생참 인진쑥 엑기스', 'CD 엽불시리즈', and '수암 만다라 옥침'. Each product is accompanied by an image and a detailed description of its benefits and price.